

# 한국청년의 이문화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관계와의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Between Cross-Culture Exchange and Communication(Negotiation)  
of Korean Youth

이제홍(J. Hong, Lee)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이론적 연구 및 가설수립	참고문헌
III. 연구설계 및 분석	ABSTRACT

## 국문초록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각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타국의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 즉, E. T. Hall(1959)의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 그리고 Hofstede(1991)의 5개 차원(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 또는 집단주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 장기적지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이문화변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이문화 형성에 따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미래의 한국 통상협상 모형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 젊은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인은 장기지향성이 있으며, 권력간격이 매우 높으며, 남성주의가 강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 젊은이의 이문화 변화 유형은 남성주의보다는 여성주의 경향이 강하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보다는 가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력간격이 낮은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적인 성향이 아니며, 즉각적인 어떠한 사안에 즉각적인 반응과 해결하고 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제어** : 이문화, 고배경문화, 저배경문화,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집단주의, 남성주의, 장기지향성, 한국 청년

## I. 서론

문화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 등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문화의 유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문화의 유사성과 흡수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는 타문화권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과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국 문화를 숙지하지 않으면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문화는 국제간 비즈니스 경쟁력과 글로벌 협상 역량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하며, 이와 같은 이문화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며(Dodd, 1998, 2007). 특히 이문화는 다른 문화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실질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친밀감 표시정도(Jensen, 1970), 만족, 불만족 표현(Nomura and Barnlund, 1983), 외모, 제스처, 예의를 표현하고, 좋고, 싫음을 표시하고, 농담하고, 식사하고 술마시는 습관 등(Dodd, 1998)에도 국가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해외에서 문화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화로 진행되면서 기업에 해외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문화적 민감성과 글로벌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Samovar and Porter, 2001). 그러나 현재와 같은 네트워크 사회는 개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심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SNS가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개인의 선호도 및 사회적 맥락이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So Yeon Lee and Bum Soo Chon, 2012). 이는 기존에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체적 현상의 역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신세대와 기성세대는 사회문화적 변화 때문에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특히,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사회규범이 급속한 변화로 전통적 사상보다 개인주의의 서구자본주의 사상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권중욱·김학조, 2010). 전통적 방식의 문화적 가치관과 현재 젊은 청년들의 문화적 가치관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한국 젊은 청년들은 미국, 유럽 또는 아시아의 다른 문화들을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문화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감소하게 되었다. 협상이 이문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보다 효율적 접근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문화와 관행, 의사소통방식에 적용함으로써 비즈니스상 갈등과 피해를 줄이며, 효과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ark Sang Nam, 2008). 특히, 본 연구는 Hofstede와 Hall의 요인들을 추출하여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또한 한국 젊은 청년의 이문화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이문화 변화 추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각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타국의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 즉, E. T. Hall(1959)의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 그리고 Hofstede(1991)의 5개 차원(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 또는 집단주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 장기적지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이문화변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가는지의 변화 예측을 도출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연구 및 가설수립

### 1. 이론적 연구

#### 1) 문화와 한국인의 이문화

문화는 인간행동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기본적 문제들에 대한 일반화된 원칙이라고 하였으며(Kluckhohn and Strodtbeck, 1961). 문화는 인간의 사고, 감정, 가치관 및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행위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김진학·김현중, 2000). Baumer(2002)가 제시한 문화의 구조적 특징은 ① 국민성, 기본인품, 사회적 특징 ② 인지 ③ 시간 ④ 공간 ⑤ 사고 ⑥ 언어 ⑦ 비발화적 의사소통 ⑧ 가치지향 ⑨ 행동양식, 풍속, 규범 ⑩ 사회적 집단과 관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는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조직내 어디에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화가 구성원에 의해 인식되고 공감되지 못하면 문화가 아닌 것이다(박종돈, 2012).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쪼개어 분석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파악하려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몇 가지가 맘에 들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신인아, 2001). 한국인들은 명분을 중요시 하며, 체면 유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Suk-hyon Kim, 2003). 그리고 한국은 관계문화로서 혈연과 학연 그리고 지연의 사회로서 한국사회는 특징은 집단구조로서 마을 공동체가 시작이라 할 수 있다(김미정·채대석, 2010).

한국인의 문화적 장애요인은 서열, 체면, 자문화중심주의, 폐쇄성, 인종차별, 집단주의, 에티켓 그리고 호칭 등 8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의 구성요소들이 E. T. Hall(1976)의 고배경 문화 특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wang Hae-Jin and Hwang Ye-Kyung, 2008). 외국인이 인지하는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장애요인은 언어적 요인(17%), 비언어적 요인(12%), 회의 요인(42%), 문화적 요인(29%)이며, 이의 장애요인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혹은 다수의 장애요인이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Hwang Hae-Jin and Hwang Ye-Kyung, 2008).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상충하면 감정적이 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회의시 상대방과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이 속한 문화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청하며 의견을 존중해야만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Hwang Hae-Jin and Hwang Ye-Kyung, 2008).

## 2) 한국 이문화 협상 행태

문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상에 영향적일 수 있다(J.W. Salacus, 1992). 문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협상당사자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개발을 위해서이다(Jee-Hoon Lee and Jong-Gu, Lee, 2009). 조직차원의 협상에서도 협상과정의 당사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인지하는 문화적 차이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정보는 협상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n-Joon Park, 2007). 안세영·홍성민(2004)은 행위자가 실제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 이문화간 협상에 있어 상대방 협상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결과 협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와 이문화의 가치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도 다른 형상행위를 하게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타인과의 의뢰하는 경우 화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의뢰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분위기 등에 의해 태도를 달리하며 화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熊谷, 1995). 또한 문화적 가치가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협상자의 역할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기대와 목표도 협상자의 역할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Wilson and Putman, 1990). 한국인은 협상 시 불필요한 자존심, 자기 비하, 준비 소홀, 무객관성(김병국, 2002) 등의 행태를 보이거나, 또는 협상에 임해서도 장유유서와 권위주의, 흑백논리, 조폭식의 극단적 해결을 모색(김기홍 : 193)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협상에서 결정권의 권력자 집중, 암시적인 의사소통(집단주의), 대립보다 타협의 선호(여성성), 규칙의 중시(불확실성 회피) 및 장기지향으로 특성화 된다. 이것은 개인주의 문화(예컨대 미국 등)와 거의 상반되는 문화적 특성들이다.

특히, 김지용(2009)은 통상협상에 있어서 협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상자의 개인적 특성, 상황적 제약 및 협상자의 행위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협상자의 특징은 협상자들이 가지는 고유의 개인적 특성이라 하며, 이는 인위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라 할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는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 2. 가설수립

### 1) Hofstede 이문화 유형

#### (1) 권력거리(Power Distance)

권력격차는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간에 권력이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에 관한 개념이다. 권력차이가 크다는 것은 권위가 받아들여지고, 불평등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Johnson and Cullen(2002)은 권력차이가 큰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지도력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Adler(2002)는 권력격차가 큰 사회는 서열을 중시하고, 권력격차가 작은 사회는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권력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최윤희, 2003). Kluckhohn and Strodtbeck(1961)의 시간 차원을 적용하면, 권력격차가 큰 사회는 서열 및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지향적 시간개념을 지닐 가능성이 크고, 권력격차가 작은 사회일수록, 미래지향적 시간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H1 : 큰 권력격차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 회피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문화적 특징에 관한 것이다.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국가사람들은 모호성, 애매성을 인내하는 것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며, 또한 위험을 기피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특징을 보인다. Hofstede(1995)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높은 문화권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간의 차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불확실성이 낮은 문화권사람들은 서로간의 차이에 호기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Johnson and Cullen(2002)은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사회에서는 의견의 일치성이나 합의가 중

요해진다고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확실성 회피가 낮은 문화권에서는 변화, 모호성, 불확실성 등을 참아내고, 자신의 의견과 차이가 나는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Johnson and Cullen, 2002, p.345.).

*H2 : 낮은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 내 구성원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을 하나의 유일한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떤 특정 내집단(in-group)의 회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Triandis(2002)는 집단주의 사회 내의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단 전체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며, 집단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남보다 못할까 걱정한다. 김미정·왕려원·박문서(2015)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는 국제협상에 이어서 조직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과 중국은 집단주의인 반면 캐나다는 개인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최영봉(2012)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그 사회는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중앙집권적 사회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조직에 반영시키는 배려적 리더십 선택과의 관계에 대해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3 : 강한 집단주의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남성주의(Masculinity)대 여성주의

남성주의는 전통적인 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전통적 성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성주의가 지배적인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전통적 여성의 역할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적 문화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역할을 공유한다. Hofstede(1995)는 남성주의사회에서 일의 결과를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업적에 따라 보상받는 경향이 있다. 노동에 대한 철학 관점에서 보면, 남성적 문화권에서는 종업원들은 '일하기 위해 살고' 여성적 문화권에서는 종업원들은 살기위해서 일한다 (최윤희, 2003, p.216.).

*H4 : 강한 남성주의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장기지향성(Long Term Orientation)

장기지향성은 Hofstede(1980)가 처음 이문화를 구분하고 난 뒤, Hofstede, G. and Bond, M.(1988) 1988) 공동으로 중국문화의 유교적 역동성을 연구하면서 추가한 다섯번째 기준이다. 또한 김유경(2004)은 사회가 관습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지향성이 지배적인 문화권에서는 인내, 끈기, 희생, 절약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반면, 단기지향성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체면유지, 전통에 대한 존중, 호의에 대한 답례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Johnson and Cullen, 2002, p.345). Adler(2002)에 의하면,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대기업은 신입사원이 30-40년 일할 것으로 기대하는 장기적 성향을 보이는 반면, 미국기업의 이직률은 높아서 단기적 성향을 보인다(Adler, 2002, p.32).

*H5 : 장기 지향적 성향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E. T. Hall 이문화 협상

Hall(1976)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저배경과 고배경 문화(High Context/Low Context)를 분류하였다. 특히,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상황에 부여했느냐에 따라 고배경, 저배경문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정된 약호와 상황적 단서에 의존하는 고배경문화는 모호하고, 함축적이며 간접적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정교한 언어메시지로 주로 의지하는 저배경문화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준다(최윤희, 2004). 일반적으로 저배경사회에서는 언어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지닌 반면, 고배경사회에서 특정상황에 수반되는 조건들이 의사소통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이고, 간접적이고 암묵적이다. 노명환(2004)은 저배경사회인 독일의 경우, 언어보다는 정확한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며, 고배경사회에서 문서보다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며, 언어보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한다.

*H6 : 암시적, 간접적 대화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불확실한 장기적 시간관념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 업무공간의 개방성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 과거 중심적 성향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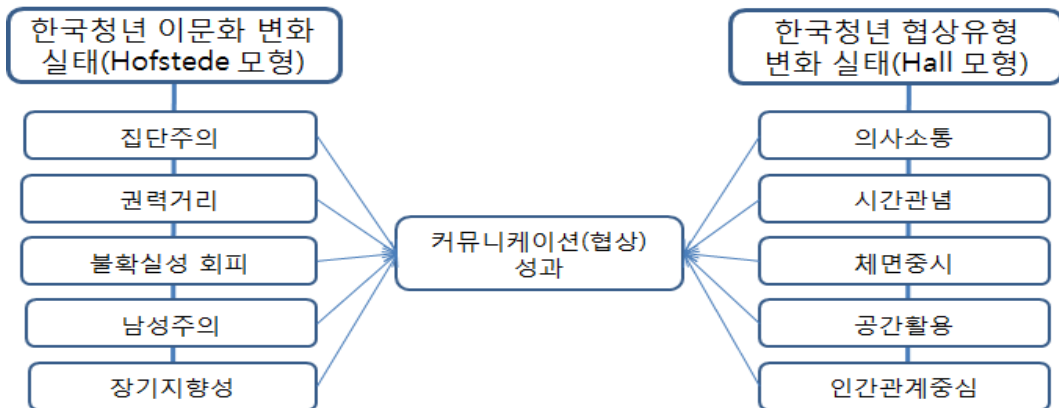


### Ⅲ. 연구설계 및 분석

#### 1. 연구설계

##### 1) 연구모형의 수립

본 연구는 Hofstede(1980)와 Hofstede and Bond(1988)의 5가지 이문화 유형적으로 구분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남성성 및 여성성 그리고 장기지향성 등의 요인과 Hall(1976)의 저배경과 고배경 문화(High Context/Low Context)를 중심으로 모델을 수립하였다. 저배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물을 표현한다. 고배경사회에서 특정상황에 수반되는 조건들이 의사소통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인으로 모델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표본설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문화 변화요인과 협상성과를 분석을 위해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을 표본으로 하였다. 설문지 응답기간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행하여, 1차로 300부 배포하여, 200부 수거하여 유효 설문지 11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방법은 ‘아주 그렇다’ 7점,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한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Excell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20-30대의 청년으로 총 119명으로 성별, 직업, 그리고 외국인 친구여부에 대해 표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55명(46.6%), 여자 63명(53.4%)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학생 68명(57.6%), 직장인 50명(42.4%)이 응답하였으며, 외국 이문화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외국인 친구 유무의 질문에 외국인 친구가 있음에 40명(33.9%), 외국인 친구가 없음에 응답한 응답자는 78명(66.1%)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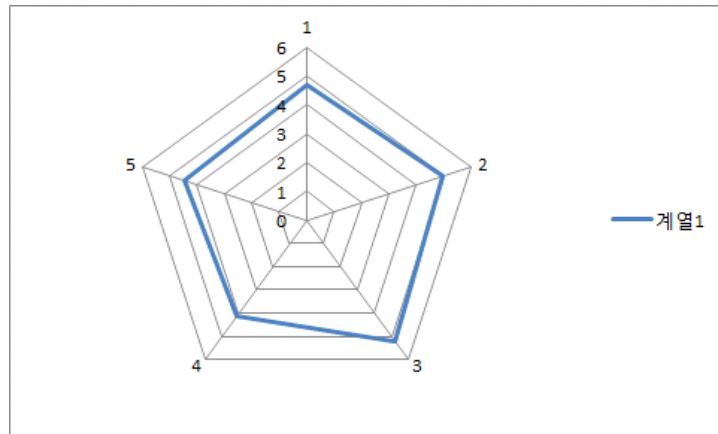
〈표 1〉 빈도분석

내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5	46.6
	여자	63	53.4
직업	학생	68	57.6
	직장인	50	42.4
외국인 친구여부	외국인친구 있음	40	33.9
	외국인 친구 없음	78	66.1
응답자 총계		118	100.0

## 2. 연구기초분석

### 1) 한국 청년 이문화의 변화추이 실증분석

Hofstede(1980)가 정리한 이문화 요인 중 동양문화권에서 추구하는 이문화 요인들을 한국 청년들의 이문화 변화 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그림 2]에서 1=집단주위, 2=장기지향성, 3=권력간격, 4=남성주의, 5=불확실성회피로 구분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젊은이 이문화 변화 추이를 보면, 권력간격(5.2)이 매우 크며, 그 다음으로 장기지향성(4.98), 집단주의(4.69)와 불확실성회피(4.43), 남성주의적(4.11)인 이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력간격이 크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은 권력차이가 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의 상층부에 사람들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주의적 이문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현재 한국 젊은이는 권위적이며, 지배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차이를 인정하는 남성주의 문화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역할을 공유하는 여성적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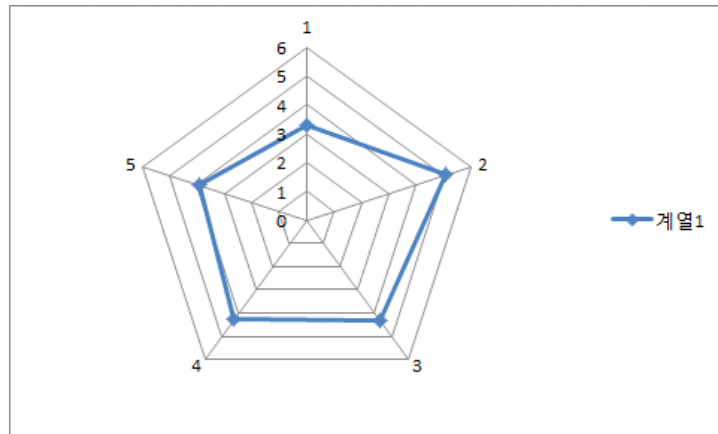


[그림 2] 이문화 추이

## 2) 한국 청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변화추이 실증분석

Hall(1960)이 제시한 이문화 차이를 고배경(high-context culture)과 저배경(low-context culture)으로 이원화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국 젊은 청년들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그림 3]에서 1=인간관계중심, 2=공간활용, 3=의사소통, 4=체면중시, 5=시간관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젊은이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추이를 보면, 공간활용(5.6)이 매우 크며,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4.33), 체면중시(4.28), 시간관념(3.9) 그리고 인간관계중심(3.3)이 가장 낮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났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배경국가인 한국은 공간은 노출되어 공유함과 아울러 대화시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이는 사무실 공간은 개인별로 구별되어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 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젊은이는 시간관념에서 문제발견과 해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체면중시에는 아직도 한국 젊은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관계중심 사회에서 개인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것으로 저배경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변화 추이

### 3. 요인분석

Hofstede 이문화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이 0.573으로 양호함으로써 변수 쌍들이 상관관계가 타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검정치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1098.324로 귀무가설이 유의수준 0.000에서 기각됨으로써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결과 측정항목의 속성들인 집단주의, 권력간격, 불확실성 회피, 남성주의 그리고 장기지향성 등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2> 요인추출검정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5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098.324
	자유도	171
	유의확률	.000

Hofstede의 5가지 요인인 집단주의,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남성주의 그리고 장기지향성이 커뮤니케이션(협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였다.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한 결과계수로 한국 젊은 청년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표 3> 요인분석

요인	변수	성분				
		1	2	3	4	5
집단주의	Collectivism1	.809	.244	.167	-.026	.019
	Collectivism2	.785	-.135	-.044	.110	.249
	Collectivism3	.717	.210	.255	-.090	.001
	Collectivism4	.697	.209	-.045	.164	.129
	Collectivism5	.535	-.089	.411	.317	.409
권력거리	Power Distance1	.051	.836	.035	.078	.327
	Power Distance2	.219	.811	.146	.233	-.018
	Power Distance3	.471	.605	.150	-.385	.184
	Power Distance4	.028	-.493	.050	.449	-.134
불확실성회피	Uncertainty Avoidance1	.077	-.066	.846	-.049	.168
	Uncertainty Avoidance2	.297	.037	.683	.158	.398
	Uncertainty Avoidance3	.070	-.227	-.678	-.024	.253
	Uncertainty Avoidance4	-.314	-.153	-.505	.385	.168
남성주의	Masculinity1	-.067	.168	.041	.802	-.004
	Masculinity2	.310	.016	-.033	.700	-.028
장기지향성	Long-term Orientation1	.233	.188	.158	.006	.804
	Long-term Orientation1	.048	.233	-.123	-.151	.624
Initial Eigenvalues		4.976	2.340	1.816	1.576	1.455
Variance %		26.188	12.316	9.555	8.293	7.659
Cumulative %		26.188	38.504	48.059	56.352	64.011

Hall의 이문화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이 0.512로 양호함으로써 변수 쌍들이 상관관계가 타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검정치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1058.046으로 귀무가설이 유의수준 0.000에서 기각됨으로써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결과 측정항목의 속성들인 의사소통, 시간관념, 체면중시, 공간활용 그리고 인간관계중심 등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4> 요인추출검정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5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058.046
	자유도	171
	유의확률	.000

Hall의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 중 한국에 해당되는 요인을 5가지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의사소통, 시간관념, 체면중시, 공간활용 그리고 인간관계중심이며, 이들 요인이 커뮤니케이션(협상)의 성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5〉 요인분석

요인	변수	성분				
		1	2	3	4	5
의사소통	Communication1	.876	.051	.127	.139	-.019
	Communication2	.843	-.200	.102	.095	.110
	Communication3	.745	.108	.028	-.013	-.176
시간관념	Time Tube1	-.242	.780	.044	.191	.204
	Time Tube2	.116	.764	.033	-.282	.016
	Time Tube3	.013	.618	-.246	-.230	-.051
	Time Tube4	.260	.593	-.356	.045	.363
체면중시	Face to Face1	-.004	-.160	.737	.023	-.257
	Face to Face2	.218	.226	.688	-.211	.130
	Face to Face3	.403	-.143	.616	.348	.189
	Face to Face4	.040	-.095	.537	.341	.013
공간활용	Space utilization1	.103	-.041	.097	.865	.045
	Space utilization2	-.075	-.090	.285	.783	-.175
	Space utilization3	.196	-.041	-.220	.664	.026
인간관계중심	COHR1	.058	.097	-.133	.064	.900
	COHR2	-.151	.129	.128	-.135	.779
Initial Eigenvalues		3.687	2.997	2.033	1.869	1.354
Variance %		19.403	15.775	10.699	9.838	7.125
Cumulative %		19.403	35.178	45.877	55.715	62.840

#### 4. 실증분석

##### 1) Hofstede 이문화와 커뮤니케이션(협상)성과 검증

Hofstede의 5가지 이문화 측정변수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이문화 변화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보면, 분석결과  $R^2$ 가 2.67로 표본회귀선에 적합하고, F 값이 8.158로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Durbin-Waston값이 2.405로 유의하며, 모든 요인들의 분석결과 유의성은 있으나 베타 값과 t값에 따라 가설 검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집단주의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유의성이 0.000로  $p < 0.001$ 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은 채택된다.

둘째, “큰 권력격차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174로  $p < 0.1$ 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낮은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345로  $p < 0.1$ 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넷째, “강한 남성주의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215로  $p < 0.1$ 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장기 지향적 성향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001로  $p < 0.001$ 에서 유의하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6〉 Hofstede 이문화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성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44	.727		1.850	.067
집단주의	.280	.074	.325	3.788	.000
장기지향성	.136	.100	.136	1.367	.174
권력간격	.064	.068	.080	.948	.345
남성주의	-.093	.074	-.125	-1.248	.215
불확실성회피	.260	.074	.334	3.516	.001
*a. 예측값:(상수), 집단주의, 장기지향성, 권력간격, 남성주의, 불확실성회피 *b. 종속변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 *R <sup>2</sup> : .267, 수정 R <sup>2</sup> : .234, 유의확률: 0.000, F값: 8.158, Durbin-Watson: 2.405					

\*\*\* $p < 0.01$  \*\* $p < 0.05$ , \* $p < 0.1$

Hofstede에 의하면 한국은 집단주의가 강하며, 장기지향적 성향이 있는 이문화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한 집단주의와 장기적 성향이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Hofstede의 연구와 실증적으로 유의한 반면 집단주의, 권력간격 그리고 남성주의 이문화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젊은이 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권력간격이 큰 이문화 국가에서 권력간격이 낮은 이문화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남성주의 국가에서 여성주의 국가로의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Hall의 이문화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 검증

E. T. Hall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요인 중 5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가설 수립과 검증을 하였다. 한국 청년의 이문화와 협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보면, 분석결과 R<sup>2</sup>가 0.525로 표본회귀선에 적합하고, F값이 24.768로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Durbin-Watson 값이 2.093으로 유의하며, 모든 요인들의 분석결과 유의성은 있으나 베타값과 t값에 따라 가설 검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관계중심의 성향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는 유의성이 0.023으로 p<0.01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은 채택된다.

둘째, “업무공간의 개방성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115로 p<0.1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암시적, 간접적 대화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340로 p<0.1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넷째,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000으로 p<0.001에서 유의하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불확실한 장기적 시간관념이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은 유의성이 0.920으로 p<0.1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7> Hall의 이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성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00	.530		1.320	.190
인간관계중심	.163	.071	.187	2.307	.023
공간활용	.140	.088	.124	1.590	.115
의사소통	.059	.062	.074	.958	.340
체면중시	.530	.061	.691	8.700	.000
시간관념	-.007	.067	-.008	-.101	.920

\*a. 예측값:(상수), 시간관념, 공간활용, 의사결정, 의사소통, 시점주의  
 \*b. 종속변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  
 \*R<sup>2</sup>: .525, 수정 R<sup>2</sup>: .404, 유의확률: 0.000, F값: 24.768, Durbin-Watson: 2.093

\*\*\*p<0.01 \*\*p<0.05, \*p<0.1

Hall의 이문화 배경의 이론적 연구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젊은이는 아직도 커뮤니케이션(협상) 결과에서 인간관계중심과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인간관계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며, 다른 사람들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며, 외형적인 부분에 매우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 고배경문화권의 국가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업무공간의 개방성, 암시적이며 간접적 의사표현, 불확실한 장기적 시간관념의 요인은 고배경문화권 속한 한국의 이문화에 해당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들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당된다. 이는 즉, 한국 젊은이는 개방적 업무공간보다 개인적 업무공간을 선호하며, 암시적이며 간접적인 의사표현보다는 명시적이며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하며, 시간관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시간관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글로벌 시대에 문화는 변화하며, 변화속도는 빠르게 진행하며, 변화의 진행과정과 유형이 정형화된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문화의 공유성이 높아지며, 공동의 의식을 함께할 때 매우 동일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이문화간의 변화 형태에 따라 협상과 커뮤니케이션도 변화하여 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익이 결부된 기업과 정부간의 협상은 이문화의 변화유형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숙지하여야 긍정적, 능동적으로 국제협상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도 급속한 산업화로 집단주의 성향에서 개인주의적 문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에 한국인이 당황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 위상이 상당히 제고됨에 따라 생활이 모습이 세계로 뻗어가는 진취적인 서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Hyong In Kim, 2008).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변화는 아직도 미국인들의 정도에는 못 미친다. 그들은 불평하면서도 직장과 가정의 위계질서를 지키고 친구와의 교분이 그것이 어느 정도 불편하더라도 감내하는 부분이 많다(서대원, 2008).

이와 같이 이문화의 형태에 따라 한국인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의사결정권한이 최고 경영자(권력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고배경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인 협상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리고 한국인 협상자들은 투쟁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선택한다(오철, 1982; 이규태, 1983; 이학중, 1993; 신유근, 1993).

이와 같이 규정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이문화와 협상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는 한국인 젊은이는 Hofstede에 의하면 한국은 집단주의가 강하며, 장기지향적 성향이 있는 이문화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한 집단주의와 장기적 성향이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Hofstede의 연구와 실증적으로 유의한 반면 집단주의, 권력간격 그리고 남성주의 이문화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한국 젊은이의 이문화 변화 유형은 남성주의보다는 여성주의 경향이 강하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보다는 가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력간격이 낮은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적인 성향이 아니며, 즉각적인 어떠한 사안에 즉각적인 반응과 해결하고 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Hall의 이문화 배경의 이론적 연구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젊은이는 아직도 커뮤니케이션(협상) 결과에서 인간관계중심과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공간의 개방성, 암시적이며 간접적 의사표현, 불확실한 장기적 시간관념의 요인은 고배경문화권 속한 한국의 이문화에 해당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들은 커뮤니케이션(협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당된다. 특히,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관계가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사이가 좋을 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또는 집단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온갖 편의를 봐주다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또한 한국 젊은이는 인간관계 중심의 국가로서 인적네트워크가 모든 업무의 성패를 가름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연, 지연 등의 관계가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여 외형적이며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Hall의 이론을 뒷받침 하는 고배경 문화권에 속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한국 젊은이는 공간노출과 사무실 공간 공유하는 개방성을 유지하는 문화속성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암묵적 의사소통 그리고 시간관면이 매우 장기적이며, 불확실 할 것이라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검증은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공간을 이용하는데 고배경문화권에서는 개방성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개별적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사생활 침해를 매우 싫어하는 문화적 속성으로 변화해가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암묵적 의사소통보다는 직접적이며,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울러 앞에서도 언급한 시간적 측면에서는 시간질서를 매우 중요시하게 고려하며, 명확한 시간관념을 지니는 저배경문화권의 속성 유형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젊은 청년들의 이문화 속성의 변화는 미래의 글로벌 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이문화 유형의 정립을 다시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문화의 개방과 정형화는 젊은 세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정부의 협상과 기업의 비즈니스 협상에 대한 학술적 정립을 재 창출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진석, “중국인 판시(關係)의 구성요소와 곤경사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중국연구, 제37권, 2006, p.268.
- 고민정·강재정·서용건,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서귀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영문화, 제42권, 2013, pp.321-345.
- 권종욱·김학조, “한국과 중국 종업원의 세대간 직무가치관 분석,”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pp.1-20.
- 김미정·왕려원·박문서, “글로벌비즈니스 협상의 신뢰수준별 차이: 한-캐나다인의 대중국 협상 문화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2015, pp.155-176.
- 김미정·채대석, “한중일 비즈니스 협상과 문화의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2010, pp.409-438.
- 김기홍,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 지는가, 굿인포메이션, 2001.
- 김병국,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협상기술, 서울 : 더난출판, 2002.
- 김순임,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29집, 2009, pp.97-129.
- 김유경, “문화거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거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3호, 가을호, 2004, p.35.
- 김지용, “협상의 상황적 제약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무역계약 상황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2009, pp.329-342.
- 김진학·김현중, “문화적 측면의 국제협상 연구방법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25권,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pp.31-55.
- 박양순, “다문화사회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한중일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7권, 2009, pp.67-86.
- 박종돈, “M&A 협상성과에 기업간 문화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2006, pp.229-247.
- 서대원, 글로벌 파워매너, 중앙북스, 2008, pp.16-17.
- 신유근, 한국의 경영, 서울: 박영사, 1993.
- 신인아, “유고슬라비아의 문화변동과 한국인의 이문화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39권 2001, pp.14-23.
- 안세영·홍성민, “문화간 태도 진단성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협상연구, 제

- 10권 제2호, 2004, pp.49-71.
- 오세철,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조직행동이론의 재구성, 서울: 박영사, 1982.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속), 신원문화사, 1983.
- 이승영·이종화, 글로벌경영, 도서출판보명, 2006, p.253.
- 이정아·최영봉, “다국적 기업의 문화지향성과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2012, pp.351-379.
- 이종건·박헌준, “한국인의 협상전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협상연구, 제10권 제1호, 2004.
- 이지훈·이종구, “교차문화적 협상과 협상태도에 따른 특성요인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3호, 2009, pp.18-38.
- 이학중(1998),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서울: 박영사, 1998.
- 임영철,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태학사, 2008.
- 최윤희, “이문화관리와 문화적 가변성의 차원에 관한 일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2003, p.212.
- 황재영.(1999). “바람직한 협상문화 정착을 위한 시론 : 한국인의 협상문화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보, 제4권 제1호, pp.163-177.
- 態谷, 依頼の仕方—國研岡崎調査のデータから, 日本語學, 14-10, 1995.
- Adler, Nancy *Internationa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Cultural Difference Studies, South Western Press, 2002, p.60.
- Barry, B. and R. A. Friedman, “Bargainer Characteristics in Distributive and Integrative Nego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1988, pp.345-359.
- Baumer, Thomsa, *Handbuch Interkulturelle Kompetenz*, Zurich: Orell Fussli Verlag AG, 2002.
- Brady, L. P., *The Politics of Negotiation*,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Dodd, C. F., “International Readiness Assessment for Pro-departure Candidat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Vol.16, No.2, 2007, pp.1-17.
- Dodd, C. F.,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sup>th</sup> ed. New York: McGraw Hill, 1998.
- Donald N. Clark, *Cultural and Customs of Korea*, Greenwood Press, 2000, pp.30-36.
- Edward T. Hall, *Beyond Cultur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p.79.
- Eun Yeong 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and Social Issues*, Vol. 2, No. 1, 1995, pp.199-226.

-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A: SAGE, 1980).
- Geert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all, 1991, p.12.
- Goldberg, L. R.,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 in Personality Lexicon. In Wheeler, L(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 1981, pp.141-165.
- Hall, E.T., *The Silent Language*, NY: Doubleday, 1959.
- Hall, Edward(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NY: New York.
-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1991.
-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sup>nd</sup> ed., London: Sage Publication, 2001, p.87.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A:SAGE, 1980.
- Hofstede, G. "Problems Remain but Theories Will Change: The Universal and the Specific in the 21st Century Global Man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Vol. 27. 1999.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McGraw-Hill, 1980.
- Hofstede, G. H. and Bond, M. H.,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Vol.16, No.4, 1988, pp.4-21.
- Hofstede, G., Hofstede, G. J., and Minkov, M.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mind: intercultural cooperation and its importance for survival, 3rd Edition*. NY: McGraw-Hill, 2010.
- Hwang Hae-Jin and Hwang Ye-Kyung, "A Study on Koreans' Barriers in the Intercultural Business Communications from the Foreigners' Viewpoint Focused on international Meeting of Multinational Compan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17, No.1, 2008, pp.73-91.
- Hyong In Kim, "The Origins of Cultural Conflict between the U.S. and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Cod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008, pp.83-105.
- Jean Johnson and John Cullen, "Trust in Cross-Cultural Relationship," Martin Gagnon and Karen Newman (ed), *The Blackwell Handbook of Cross-Cultural Management*, 2002, Blackwell, p.345.
- Jee-Hoon Lee and Jong-Gu, Lee, "A Study on Characteristic Factors by Cross-Cultural Negotiating and Negotiating Behavior," *The Journal of European Studies*, Vol.6, No.3, 2009, pp.17-38.

- Kluckhohn, F. R. and Strodtbeck, F. L.,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 Row, Peterson, 1961.
- Larry A. Samovar and Richard N.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Belmont, CA* Wadsworth, 1995, p.100.
- Park Sang Nam, "The Need of Cross-culture Management for Korean in Central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12, No.2, 2008, pp.113-132.
- Park, Hun-Joon, "Theoretical Challenges and Perspectives on Business Negotiation," *Yonsei Business Review*, Vol.44, No.2, 2007, pp.181-211.
- Samovar, L. and Porter, R.(1995).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98.
- Samovar, L. and Porter, 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al*(4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2001.
- So Yeon Lee and Bum Soo Chon, "Factors in Discriminating SNS Users in Korea," *Information and Policy*, Vol.19, No.4, 2012, pp.46-6.
- Suk-hyon Kim, "Korean Cultural Codes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6, No.1, 2003, pp.104-106.
- Triandis Harry, "Generic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Martin Gagnon and Karen Newman (ed), *The Blackwell Handbook of Cross-Cultural Management*, 2002, Blackwell, 2002, p.33.
- Wilson, S. R. and L. L. Putnam, Interaction Goals in Negotiation, In Anderson, J(ed.), *Communication yearbook* 13: 374-406. Newbury Park, CA: Sage.

## ABSTRACT

### An Empirical Study on the Between Cross-Culture Exchange and Communication(Negotiation) of Korean Youth

J. Hong, Lee\*

The cultural values of the traditional way and the current cultural values of young people are very different, and the rejection of cross-cultural contact is greatly reduced because Korean young people easily accommodate other cultures of the US, Europe or Asia. At present, the cultural values of the traditional way and the current cultural values of young people are very different, and the youthfulness of Korean young people easily accepts other cultures of the US, Europe or Asia, so the resistance to cross - cultural contact is greatly redu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younger Korean youths are forming the change of the foreign culture and how the negotiation will proceed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these cultur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Korean young people have collectivism cultural rights and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that there is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tendency of opposit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at the Koreans have a strong orientation, a high power interval, and strong masculinity.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Korean culture that belongs to the high background culture, Korean young people tend to be centered in the past and decision makers tend to decide by the chief executive. On the other hand, Korean young people were denied all the verifiable cultural attributes that cultural properties and communication that maintain openness to share space exposures and office space are non - verbal, tacit communication and time observation are very long and uncertain.

**Key Words** : Cross-culture, High-context Culture, Low-context Culture, Uncertainty Avoid, Office Space, Verbal

---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sun University